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5.05.28



Contents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EU 연구장관들, 독립형 FP10에 대한 집행위의 약속 환영(5.26)
- ② 유출된 EU의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 초안,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지원할 것(5.22)
- ③ 집행위, 기업들의 유럽 선택 촉진을 위한 단일시장 간소화 전략 발표(5.21)
- ④ 이사회, 새로운 유럽단일연구공간(ERA) 2025~2027 정책 의제 합의(5.27)
- ⑤ EU, 자국 내 연구자 지원과 해외 연구자 유치 간 균형 필요성 강조(5.20)
- ⑥ EU-이스라엘 과학 협력 재검토 압력 증대(5.15)
- ⑦ EU, 보건 분야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한 체계적 투자 필요성 제기(5.20)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영국, 브렉시트 이후 첫째 호라이즌 유럽 성과 긍정적이나 과거 수준에는 미달(5.21)
- ② CEPS, 한국-EU 넷제로 협력에 관한 분석 보고서 발간(5.15)
- ③ (SB펀딩레이더) 박사후연구원을 위한 EU 주요 공고(5.27)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동물실험 없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
- ② (성공사례) 농업 토양 내 플라스틱 사용의 영향 평가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1 EU 연구장관들, 독립형 FP10에 대한 집행위의 약속 환영(5.26)

- EU 연구장관들은 독립형 FP10에 대한 위원회의 약속을 환영하며, 공동 연구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
 - EU 연구장관들은 지난 5월 23일 연구장관 회의에서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FP10을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유지하겠다고 확인한 데 환영을 표했으며, 집행위원장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
 - 폰테어라이엔 위원장은 연구혁신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FP10이 유럽 경쟁력 기금과 밀접히 연계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연구장관 회의를 주재한 폴란드 과학부 장관 Kulasek은 향후 EU 기금에 대한 집행위의 세부 제안을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힘
 - 회의에서 장관들은 FP10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특히 공동 연구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 협력 연구 중심 구조인 Pillar 2의 중요성을 강조
 - 회원국들은 유럽연구위원회(ERC)와 유럽혁신위원회(EIC)에 대한 추가 자금이 필라2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FP10이 기초연구부터 혁신 및 스케일업까지 전 가치사슬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프로그램 참여를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
- 이중용도 기술의 FP10 포함 여부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AI 전략과 ERA 정책 의제를 승인
 - 이중용도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AI나 첨단배터리 등 EU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신기술들이 이중용도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리투아니아는 이중용도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하는

한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힘

- 오스트리아는 순수 국방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반대하며, 시민안보, 분쟁 예방 및 평화 유지 연구도 지원해야 함을 강조. 네덜란드는 군사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활동의 경우 유럽방위기금이나 InvestEU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
- 한편 몇몇 장관들은 과학 분야 주요 직책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더 많은 노력과 연구혁신 예산 확대를 촉구
- 회의에서 장관들은 EU의 과학분야 AI 전략에 대한 이사회 결론을 승인하여, 전략이 학제 간 연구 생태계 조성, 연구자 역량 강화, 데이터 접근 보장, AI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활용에 기여할 것을 강조
- 이사회는 또한 2025~2027년 ERA 정책 의제를 승인. 의제는 개방형 과학과 연구평가 개혁 등 11개 구조정책과 AI 발전과 연구보안 강화 등 8개 목표지향적 조치를 포함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fp10/ministers-hold-commission-account-over-independence-fp10>

2 유출된 EU의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 초안,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지원할 것(5.22)

- EU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의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할 것
 - 집행위는 유럽혁신위원회(EIC)를 확대하고, 유럽투자은행(EIB)과 협력하여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적인 방위산업 기업 대상 신규 투자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혁신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 전략은 ‘Choose Europe’이라는 슬로건 하에 혁신가와 투자자들이 유럽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략은 유럽의 연구성과 상업화를 위해 ‘Lab to Unicorn Initiative’ 계획을 추진하며, 강력한 대학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스케일업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것. 이 계획은 기술이전 사무소와 스펀아웃 창출을 지원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벤처빌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 집행위는 또한 대학과 공공기관이 국가 지원금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화할 것
 - 기타 제안으로는 공공조달 절차 간소화, 연구기술 인프라 접근 현장 마련, EU 혁신 플랫폼 출시 등이 있음
- 집행위는 기업가 교육 강화, 창업자 비자 확대,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
 - 상업화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을 대학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도록 할 것
 - Erasmus+를 통한 기업가 교육 강화 및 연구자 상업화 활동에 대한 보상 부여를 포함한 인재 유치·유지 이니셔티브를 제안
 - 유럽 블루카드 제도를 창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프랑스 기술 비자와 유사한 스타트업 비자 도입 추진

- 스케일업 단계에서 유럽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미국과의 큰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은 EIB 그룹과 함께 딥테크 스케일업을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유럽 펀드를 출범할 계획
 - 유럽 첨단 국방 스타트업·스케일업 대상 신규 투자 수단도 계획 중이나 세부 내용은 미정
 - 규제 측면에서, 다국 간 기업 운영을 위한 '28번째 체제(28th regime)' 도입과 기업의 혁신 기술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유럽 혁신법이 포함
- 이니셔티브의 모니터링을 위해 스타트업·스케일업 스코어보드 도입 예정
- 모든 이니셔티브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집행위는 유럽 및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스케일업 스코어보드를 도입 예정이며,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업 창업자 대상 연례 설문조사를 실시 예정
 - 2025년 5월 21일 발표된 단일시장 전략은 이 전략과 보완적 관계로, 전문 자격 인정 미비, 창업 규제, 표준화 지연 등의 장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며, 중견기업(small mid-caps)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도입(직원 250~750명)하여 이들이 행정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fnw/start-ups/eu-start-strategy-will-aim-bridge-gap-lab-market>

③ 집행위, 기업들의 유럽 선택 촉진을 위한 단일시장 간소화 전략 발표[5.21]

○ EU 집행위원회는 더욱 단순하고 강력한 유럽 단일시장 조성을 위한 '단일시장 전략'을 발표

- 이번 전략은 EU 내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기존 장벽 제거, 중소기업(SME)의 사업 확장 촉진, 디지털화를 통한 기업들의 부담 경감 등 과감한 조치를 포함하며, 회원국들이 기업,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되는 시장을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
- 현재 세계 경제의 변동성과 무역 긴장 속에서 EU 시장은 유럽 경쟁력의 주요 동력으로, 이미 GDP의 3~4% 증가와 360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단일시장의 완전한 구현 시 기존의 이익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단일시장 전략은 2024년 4월 유럽이사회가 요청하고, 경쟁력 담당 장관들이 세부 로드맵과 명확한 일정 제시를 재차 요청한 것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며, Letta 및 Draghi 보고서 및 2025년 EU 연례 단일시장 및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강조되었던 통합된 단일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임

○ 단일시장 전략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춤:

- (장벽 제거) 전략은 기업들이 지적한 가장 심각한 10가지 장벽*의 제거를 통해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과 서비스의 국경 간 서비스 제공 촉진, 사업의 설립과 운영을 간소화하는 효과 기대

* 복잡한 사업 설립 및 운영 절차, EU 규정의 복잡성, 회원국의 책임 부족, 전문 자격 인정 부족, 표준화 부족, 포장 규정의 분산, 제품 적합성 부족, 국가별 서비스 규제의 차이, 근로자 파견의 과도한 규정,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영토 공급 제한 등

- (서비스 부문 활성화) 건설 및 우편·소포 분야 규정을 현대화하는 건설 서비스법과 EU 배송법 제정을 제안하였으며, 설치·유지보수·수리 서비스 등 산업 관련 서비스를 촉진하고, 회원국들이 사업 서비스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지원함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SME)이 단일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SMC)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도입하여 일부 SME 혜택을 SMC에도 확대 적용. SME 인증을 위한 간편한 온라인 도구 'SME ID' 구축 및 SME 활동 촉진을 위한 'SME 특사 네트워크' 운영 예정
- **(규제 간소화 및 디지털화 촉진)** 기업의 규제 및 행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4억 유로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제4차 규제 간소화 패키지를 도입하고, 제품 관련 문서와 설명서를 디지털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단일시장 공동책임 강화)** 회원국들에 EU 단일시장 규정 이행을 감독하는 고위급 대표(Sherpa) 임명을 권장하고, 회원국들이 자국 조치의 비례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단일시장 장벽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274
----	---

4 이사회, 새로운 유럽단일연구공간(ERA) 2025~2027 정책 의제 합의(5.27)

○ ERA 정책 아젠다 2025~2027 이사회 권고안

- ERA 포럼, ERAC(ERA 혁신위원회) 및 이사회의 2년간의 준비 끝에 5월 23일 EU 연구장관들은 ERA 정책 아젠다 2025~2027 이사회 권고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으며, 법안 공식 채택과 공표는 몇 주 안에 이루어질 예정
- 새로운 정책 아젠다는 11개의 ERA 구조정책과 8개의 ERA 이행 조치를 담고 있음
- 새로운 ERA 거버넌스 체계는 ERA 포럼 환경을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작동했으며, 특히 이해관계자(산하) 단체의 참여가 전문성과 헌신을 이끈 것으로 평가됨
- 정책 아젠다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권고된 활동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오스트리아는 ERA 실행계획 작업을 시작했으며, 2025년 11월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3차 오스트리아 ERA 심포지엄에서 발표 예정

ERA 구조 정책	ERA 이행 조치
• 유럽오픈사이언스클라우드(EOSC)를 통한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으로 오픈 사이언스 활성화 • 연구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접근성 및 회복력 강화 • 교차적 관점에서의 성평등 및 포용성 강화 • 연구 경력의 매력도 및 지속가능성 제고, 이동성 지원 • 연구 평가 개혁 • 지식 활용 역량 및 활동 확대 • 연구혁신의 글로벌 접근 전략 이행	• 개방형 과학에 형평성 적용 • 정책을 위한 유럽 과학 생태계(S4P) 강화 • EU 과학분야에 책임 있는 AI 활용 촉진 및 가속화 • 연구 보안 강화 • 산업 혁신 및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R&I 투자 가속화 • 생의학 연구 및 의약품·의료기기 시험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론 (NAMs) 확대 •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R&I의 윤리

• 전략적 에너지 기술(SET) 계획을 ERA 핵심 주제로 추진 • 연구혁신과 고등교육의 연계 개선 및 R&I 생태계 활성화 • 시민 참여 및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과학에 대한 신뢰 제고 • EU 내 연구 우수성 접근성 향상	및 정직성에 대한 유럽 차원의 체계 마련 • 연구관리 역량 강화로 새로운 R&I 시대 개막
출처	https://era.gv.at/news-items/council-agrees-on-new-era-policy-agenda-and-launches-era-policy-cycle-2025-2027/

5 EU, 자국 내 연구자 지원과 해외 연구자 유치 간 균형 필요성 강조 [5.20]

- EU 집행위원회의 고등교육 담당 Mînzatu 부집행위원장은 EU가 자국 내 기존 연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연구자 유치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 최근 미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일부 연구 프로젝트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EU와 회원국들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연구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나, 동시에 여러 회원국에서는 연구 및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EU 내부 연구자와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음
 - Mînzatu 부집행위원장은 5월 19일 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자유와 평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연구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 그러나 동시에 EU가 자국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역시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임
 - 특히 IT와 과학 분야 등에서 숙련되고 혁신적인 인재를 유럽으로 유치하면서, 기존의 인재 육성을 위한 기술과 교육 투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
- 한편, 유럽과학기술대학그룹(Cesaer)의 Björnmalm 사무총장은 EU의 고등교육 및 연구 분야가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있다고 지적
 - Björnmalm은 해외 인재 유치와 자국 내 인재 육성을 상반된 목표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
 - 유럽이 연구 경력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자금 지원, 명확하고 안정적인 경력 경로, 연구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global magnet” 접근 방식을 제안
 - 또한 EU가 연구자의 이동성에 장애물이 되는 비자 및 거주 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촉구
 - Björnmalm은 현재 연구에 대한 핵심 예산을 삭감하면서 단기적인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식은 모순적이며, 지속 가능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politics/2025/5/-EU-must-balance-focus-on-own-and-incoming-researchers-.html>

6 EU-이스라엘 과학 협력 재검토 압력 증대(5.15)

- 벨기에 주요 대학들은 EU와 이스라엘 간 학술 교류 중단을 촉구하고 있음
 - 벨기에 대학 총장 협의회 소속 10개 대학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군사 공격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EU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은 국제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과의 과학 협력 중단을 요구
 - 과학 협력 중단 요구는 EU 외교이사회의 이스라엘 관계 검토를 앞두고 제기됨
 - 네덜란드 Veldkamp 외교장관은 Kallas EU 외교정책 고위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EU-이스라엘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 이후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 제안에 공개 지지 입장을 표명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원조 봉쇄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하며 양측의 관계 중단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핀란드 Valtonen 외교장관도 원조 봉쇄가 지속될 경우 협정 재검토 의사를 표명
- 성명서는 “협정 중단은 극단적 요구가 아니라, 협정 조항에 따른 합리적 귀결”이라며 “이스라엘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념적 입장이 아니라 도덕적, 법적 의무”라고 강조
 - 2024년에도 2,000명 이상의 유럽 학자들이 EU-이스라엘 협정 종료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한 바 있으며, 대학 캠퍼스 내 항의 시위도 확산됨
 - 스페인 대학총장회의 소속 76개 대학은 이스라엘 대학과의 협력 중단을 선언. 벨기에 겐트대학과 노르웨이 오슬로메트대학은 개별적으로 보이콧을 선언
 -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은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 선정을 군사 관련성 여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은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및 텔아비브대학교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함

○ EU 주요 기관 및 정치권은 이스라엘과의 협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

- 유럽의회 내 좌파 정당을 제외하고는 EU-이스라엘 과학 협력에 대한 변화 요구는 적으며, Ehler 의원은 벨기에 대학들의 요구가 차별적이라 비판
- Ehler 의원은 이스라엘의 EU 프로그램 참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벨기에 대학들의 성명은 이스라엘을 타 국제 파트너와 다르게 대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EU 집행위원회가 이스라엘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를 단호히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international-news/pressure-grows-review-eu-science-cooperation-israel
----	---

7 EU, 보건 분야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한 체계적 투자 필요성 제기 [5.20]

- 보건 분야를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EU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기됨
 -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EU는 보건 분야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분산된 투자로 인해 보건을 전략적 자산으로 뒷받침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함
 - Bruegel 싱크탱크의 비상근 연구원이자 EU 집행위원회 보건·식품안전 총국 전 사무총장인 Bucher는 현재 보건 관련 투자들은 각각 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전략적 관점에서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
 - Bucher는 세계보건기구(WHO) 재단, 세계경제포럼, 아스트라제네카, 필립스, 런던정경대(LSE), 아시아태평양 회복력 혁신센터 등이 참여하는 '보건시스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파트너십(PHSSR)'의 EU 전문가 자문그룹을 대표하여 발언
- 유럽의 보건 시스템은 기존 및 신규 보건 위협, 기후 변화, 고령화, 사회경제적 격차, 의약품 부족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
 - 현재 EU의 보건 관련 투자는 호라이즌 유럽의 보건 연구, EU4Health의 보건시스템 회복력 구축, 기후 기금 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건 투자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 이러한 분산형 접근이 개별 사업에 성과를 내더라도, 전략적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PHSSR 최신 보고서는 보건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2028년 시작될 차기 EU 7개년 예산에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
 - 전략적 보건 투자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축 제안(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목표·지식·성과 공유가 가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 Bucher는 EU 경쟁력 기금의 전략적 대상 분야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언급. 그러나 별도의 보건 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보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임

○ 보고서는 회원국 및 지방정부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단일 연락창구 설립을 제안

-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시범 EU 보건 허브(EU Health Hub)가 현재 운영 중임
- 또한 Bucher는 EU가 유럽질병통제센터(ECDC), 유럽의약품청(EMA), 보건비상대응청(HERA) 등 보건 기관이 임상 전문가, 연구자, 제약사, 회원국 대표 간 협력을 지원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 보건 연구 투자에도 동일 원칙 적용 필요

- 호라이즌 유럽은 약 8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며 보건 연구 분야를 한 단계 발전시킴. 그러나 생명공학 분야에 적합할 뿐 임상연구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
- 회원국들이 현재까지 임상 협력을 수용한 유일한 분야는 희귀질환이며, 이는 유럽참조네트워크(ERN)를 통해 300여 개 대학병원이 진단·치료를 공동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ERN은 정식 컨소시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고, 전문 인력들이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기엔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음. Bucher는 “이 네트워크들이 연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이들과 연구 자금의 연계가 가능하다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강조

○ EU 차기 장기예산은 보건 부문 재정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짐

- Bucher는 EU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연구 예산 삭감을 메우는 수준까지는 역량이 부족하나, 국경 간 보건 협력 지원 모델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보건이든, 국방이든, 유럽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r-d-funding/insiders-view-case-more-strategic-health-investment-eu>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① 영국, 브렉시트 이후 첫째 호라이즌 유럽 성과 긍정적이나 과거 수준에는 미달(5.21)

- 영국이 3년의 공백 끝에 2024년 호라이즌 유럽에 재가입한 첫째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브렉시트 이전의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영국은 2024년까지 호라이즌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획득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영국이 투자한 만큼의 자금을 영국 연구자와 기업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한 EU 관계자는 영국이 최고의 성과를 거둔 국가 중 하나를 차지하지만, 보조금 수주에서 여전히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함
 - 영국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약 19억 파운드를 기여하였으며, 2025년 회계연도에는 추가로 약 27억 파운드를 납부할 예정
 - EU-영국 간 협정에 따라, 영국의 순손실은 납부액 대비 16% 이하로 제한되며, 이익은 최대 8%까지 상한이 설정되어 있음
 - 호라이즌 유럽 대시보드에 따르면, 영국은 2024년에 95개 공고에서 4억 5,200만 유로를 획득. 해당 공고의 총 EU 지원금은 약 60억 유로에 달하며, 영국은 그 중 7.6%를 획득
 - 영국은 독일(15.8%), 스페인(9.6%), 네덜란드(9.1%), 프랑스(8.7%)에 이어 5위를 기록함
- ERC 및 MSCA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졌으나, 협력 및 혁신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임
 - 유럽연구위원회(ERC)에서는 독일(21.9%)과 네덜란드에 이어 보조금

3위를 차지(1억 7,850만 유로, 전체 중 10.8%)

- 마리퀴리 액션(MSCA)에서는 영국이 7,020만 유로(25.5%)를 확보하며 스페인(14.1%)과 프랑스(8.6%)를 크게 앞질러 1위를 기록. 이는 호라이즌 2020 당시 실적보다도 개선된 성과임
- 협력 프로젝트와 혁신을 포함한 프로그램 다른 부분에서 저조한 성과에 대해 EU 관계자는 영국이 대규모 국제 파트너십에 완전히 재통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

○ 영국 정부는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원 확대 의지를 표명

- 영국 정부는 영국 연구자와 기업이 호라이즌 유럽에 지원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왔으며, 과학혁신기술부 대변인은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힘
- 정부는 향후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uk/politics/2025/5/UK-yet-to-reach-former-heights-in-winning-Horizon-Europe-funds.html>

② CEPS, 한국-EU 넷제로 협력에 관한 분석 보고서 발간(5.15)

- 유럽정책연구센터 CEPS는 한국의 녹색 전환 경로를 분석하고, EU와 한국이 탄소중립 및 청정산업 전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
 - 격변의 시기에 EU와 한국은 기후, 에너지 전환, 산업 탈탄소화와 관련하여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녹색 성장 비전과 청정기술 혁신을 가속화 하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
 -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향한 한국의 비전을 유럽에 소개하고, 한국의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경제 발전의 복잡성을 강조
 - 또한 한-EU 그린파트너십 하에 더욱 심층적인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모색. 보고서는 산업 및 에너지 시스템 탈탄소화, 세계 기후 목표 달성, 분야별 기술 협력 증진, 규제 및 외교 프레임워크 활성화 등을 제시
 - 한국의 정치, 경제,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양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

출처

<https://www.ceps.eu/ceps-publications/from-partnership-to-leadership-energising-eu-korea-cooperation-on-the-road-to-net-zero/>

③ [SB펀딩레이더] 박사후연구원을 위한 EU 주요 공고[5.27]

- EU는 두뇌유출 및 불안정한 연구경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박사후연구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및 새로운 자금 지원 기회에 투자하고 있음
 - 집행위는 박사후연구자가 EU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새로운 지원책 중 하나는 Choose Europe 프로그램으로, 마리퀴리(MSCA)의 일환
 - MSCA 외에도 박사후연구자를 지원하는 EU 기금수단으로 유럽연구위원회(ERC), COST Action, 호라이즌 유럽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있음

MSCA Postdoctoral Fellowships 2025

- 개요: 유럽 내 또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연구자를 위한 펠로우십
- 공모: 2025년 9월 10일 마감
- 예산: European PFs 344 백만유로, Global PFs 61 백만유로

MSCA Choose Europe for Science 2025

- 개요: 유럽 내 연구 경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 공모: 2025년 10월 1일 ~ 12월 3일
- 예산: 22.5 백만유로

ERA Fellowships

- 개요: ERA 내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펠로우십 제공
- 공모: 2025년 9월 10일 마감
- 예산: 8 백만유로

MSCA Cofund 2025

- 개요: 기관이나 지역 차원의 박사후 연구 프로그램 공동 자금 지원
- 공모: 2025년 6월 24일 마감
- 예산: 105.5 백만유로

Next Generation Innovation Talents

- 개요: ERC 연구원 전용 박사후 연구 지원
- 공모: 2026년 7월 31일 마감

영국 Mathematical Sciences Postdoctoral Fellowship

- 개요: 수학과학 분야 박사후 펠로우십

동국대 Postdoctoral Fellowship - Smart Materials and Design Lab

- 개요: 스마트 소재 및 설계 연구실 박사후 연구원 모집
- 공모: 2025년 6월 30일 마감

3. EU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동물실험 없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

- 마리퀴리 액션(MSCA)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수행된 InPharma 프로젝트는 윤리적인 구강용 의약품 개발 방식의 혁신을 목표로 함
 - 구강용 의약품은 다양한 질병에 대한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치료 수단이지만, 대부분 소화관 흡수율이 낮고 물에 잘 녹지 않아 약효가 제한됨
 - Griffin 아일랜드 코크대학교 약제학 교수는 “신약 후보물질 대부분이 수용성은 낮고 수용체 결합에만 최적화되어 있다”며, “최근에는 분자량이 크고 복잡한 구조의 저수용성 화합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
- InPharma 프로젝트는 EU의 지원을 받아 동물실험을 사용하지 않는 구강용 제형 개발 및 시험법을 제시
 - 프로젝트는 13명의 초기단계 연구자(ESR)를 대상으로 한 분야 간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며, 이들에게 윤리적 제약 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
 - 연구자들은 ‘3R 원칙(동물실험의 대체·축소·개선)’을 실천하며, 동물실험 없이 in vitro(시험관 내) 및 in silico(컴퓨터 기반) 방법을 통해 약물 제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방법론에 집중
- 컴퓨터 기반 최적 제형 도출 및 예측 시험법 개발을 통해 임상시험 전 약물 성능 예측 가능성을 제시
 - 동물모델에서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간 대상 임상시험에 적합한 최적 제형을 식별하는 방식 도입
 - 인간 생체 환경을 더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생체관련 in vitro 시험법을 개발하여 동물시험 없이도 제형의 효과 예측 가능

○ 프로젝트에 유럽 주요 제약사들이 참여하여 산학 간 협력과 후속 연구 활성화가 기대됨

- 지금까지 30편 이상의 국제 학술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추가적인 논문 게재도 예정됨
- InPharma 프로젝트는 유럽 내 학계와 글로벌 제약사 간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공동 연구 및 연구비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 예상
- 모든 연구 결과는 오픈 액세스로 공개되어 유럽 전역 산업계에서 동물실험 대체 접근법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활용 가능
-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로슈(Roche), 바이엘(Bayer),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젠티바(Zentiva), 머크(Merck) 등 유럽 내 주요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제 연구개발 방식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연구팀은 네트워크 내 다양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EU 연구기금 확보를 위해 공동 과제 제출 계획도 진행 중
-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13명의 ESR 졸업생들의 향후 진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제약 연구 분야에서의 경력 발전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InPharma 프로젝트

- 기간 : 2021.01~2024.12
- 예산 : 약 3,464,964.00 유로 (EU 3,464,964.00 유로 지원)
- 총괄 : UNIVERSITY COLLEGE CORK -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CORK (아일랜드)

출처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58199-creating-animal-free-alternatives-for-drug-development>

② [성공사례] 농업 토양 내 플라스틱 사용의 영향 평가

- EU 지원 하에 진행된 SOPLAS 프로젝트는 농업 토양 내 미세플라스틱 존재와 그 생태·건강학적 영향 분석을 추진함
 -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의 Fiener 교수는 “토양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라며, 수질의 경우 채집망이나 필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1세제곱미터의 토양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분리해 분석하는 것은 훨씬 복잡하다고 설명
- SOPLAS 프로젝트는 마리퀴리 액션(MSCA)의 지원을 받아 14명의 초기단계 연구자(ESR)를 훈련시키고, 토양 내 플라스틱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 개발에 주력
 - 100g의 토양에는 수십억 개의 입자가 존재할 수 있으나, 미세플라스틱은 그중 100개 정도에 불과하여 분리 및 정량이 매우 어려우며, 개별 필드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많은 수의 샘플링 지점이 필요
 - 이를 위한 새로운 고효율 측정 기법이 일부 ESR 프로젝트에서 개발됨
- 연구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실제 농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실험을 진행하고, 다양한 플라스틱 유형이 동물에 미치는 독성 영향 평가도 수행
 - ESR 팀은 산업용 퇴비화 시설에서의 실험을 통해 플라스틱이 토양에 유입되는 경로를 분석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 여부도 검토함
 - 실험 결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반드시 퇴비화 환경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됨
 - 생분해성 멀치(mulch) 필름이 토양의 물 유출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한 결과,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예상대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
 - 독일 농지에 사용된 멀치 필름의 공간 분포와 사용량 추정에는 원격탐사 기술과 인공지능 분석이 활용됨

- 독성이 지렁이와 같은 동물에 미치는 생태독성 영향을 실험했으며, 현실 조건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
- 건강 및 생태계 영향 평가와 함께,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도 병행
 - 한 ESR은 농업 분야에서 플라스틱 사용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
 - Fiener 교수는 “우리는 토양 내 미세플라스틱의 일부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평가
 - 향후 과제로는 미세플라스틱의 총량과 정확한 영향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필요하며, Fiener 교수는 “토양에 얼마나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결론지음

SOPLAS 프로젝트

- 기간 : 2021.01 ~ 2024.12
- 예산 : 약 3,719,361.24 유로 (EU 3,719,361.24 유로 지원)
- 총괄 : UNIVERSITAET AUGSBURG (독일)

출처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58206-assessing-impact-of-plastic-use-in-agricultural-soil>